

TEXTILE FASHION TREND ISSUE

DYETECREVIEW 다이텍섬유리뷰

FASHION-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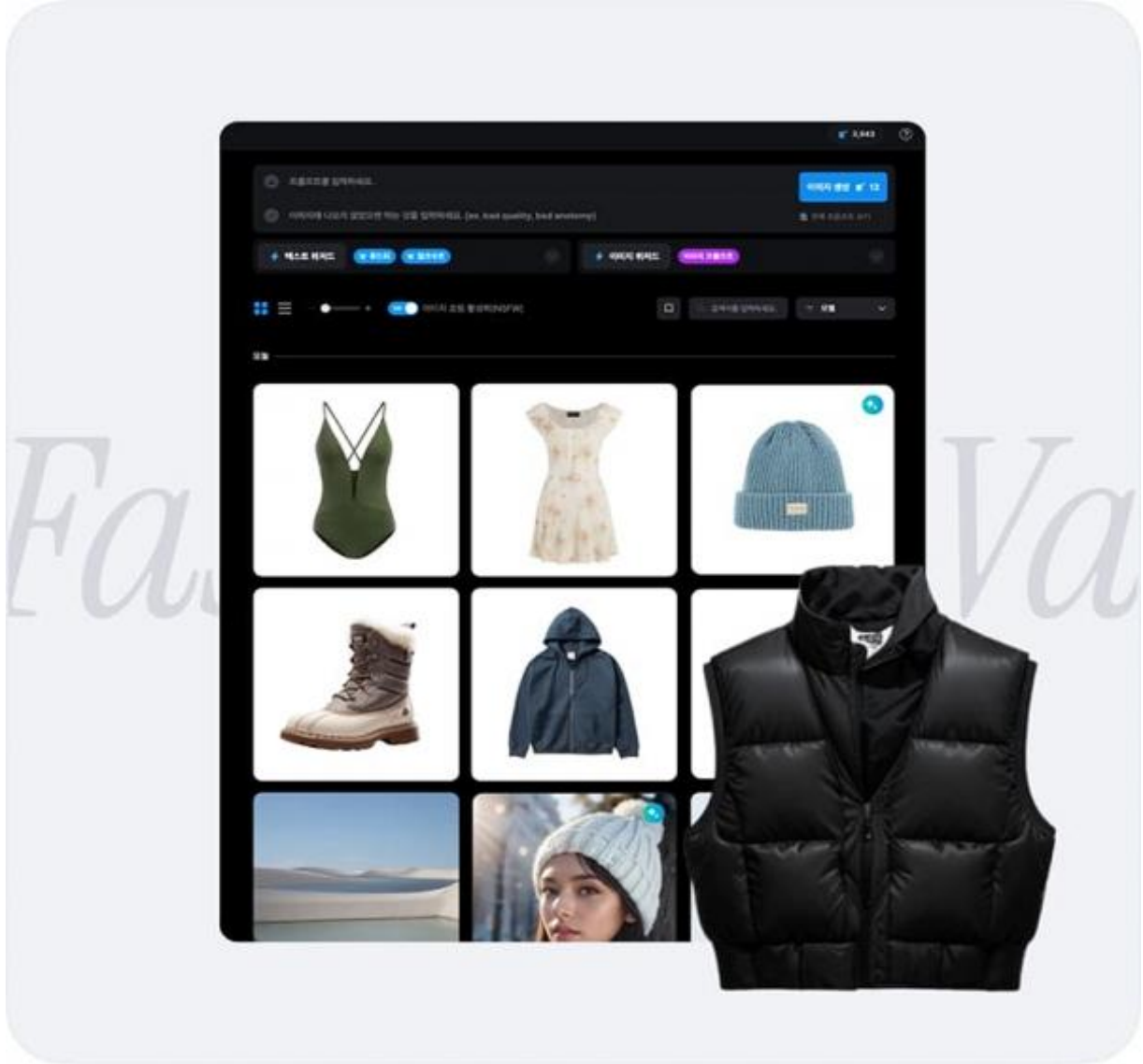
산업혁명 새 지평 여는 '버티컬 AI'시대 개막

NC AI, 패션 분야 효율 높인 '바르코 아트' 솔루션 첫선

2025년 인공지능(AI) 산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 AI는 '범용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진을 분석하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이제 AI는 점점 더 '산업의 언어'를 배우고 특정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는 전문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버티컬 AI(Vertical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버티컬 AI란 의료 제조 금융 패션 미디어 등 각 산업의 고유한 데이터와 규제, 업무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NC AI는 엔씨소프트의 AI 전문 법인으로 게임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창작과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오디오, 그래픽스, 번역, 챗봇 등 다양한 AI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과 외부 협업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으며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NC AI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패션 산업에 최



적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바르코 아트' 솔루션이 시장에서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솔루션은 디자이너가 '스트리트 캐주얼'과 같은 키워드만 입력해도 3.2초 만에 10종 이상의 의류 디자인을 자동 생성한다. MLB와 디스커버리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F&F가 이미 이 솔루션을 유료로 도입해 신상품 기획과 디자인, 생산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실제로 F&F는 기존 6개월 걸리던 제품 개발 주기를 3개월로 줄였고 AI가 제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신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버티컬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2025년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동반자'로써 인류는 이 새로운 동료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버티컬 AI의 시대, 산업혁명의 새 지평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다이텍연구원 소재부품장비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최종 선정

전북권·대경권 탄소 복합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기대



다이텍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용 습식 파우더 기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공정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열가소성 프리프레그는 고성능 열가소성 수지를 탄소 섬유 등 섬유보강재에 미리 함침시킨 형태의 중간재료, 기존 열경화성 대비 빠른 성형 속도, 우수한 재활용성, 높은 내충격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프리프레그와 자동 적층 공정을 접목하면 복합소재 부품의 대량생산과 품질 일관성 확보가 가능해 UAM 산업의 핵심 경량·고강도 부품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수행되며,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34억원, 민간부담금 46억원)이 투입된다. △열가소성 복합재 제조-적층-성형을 포괄하는 전주기 공정 인프라 구축, △AI 기반 디지털 공정기술 확보 △소재·공정 데이터베

이스(DB) 구축 △전주기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이텍연구원은 주관기관으로서 전주대학교 내 UAM 복합재 기반기술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하고 기존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다이텍연구원 전북센터)와 연계하여 UAM용 외장 구조재 및 내장 안전부품 등 복합소재의 경량·고강도 구조화,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AI 기반 공정 최적화 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 선도 및 신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열가소성 프리프레그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부품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는 UAM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성장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참여기관으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참여해 자동공정 시스템 구축, 소재 및 공정 데이터 확보, 기술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의 연결을 촉진할 예정이다.



FASHION-AI

코디미 '포투', 패션 모델 촬영 없이 콘텐츠 완성

상하의 착장, 얼굴 고정, 뒷면 생성 기능 등 '완성형 AI 모델컷' 구현

패션 콘텐츠 제작 자동화를 선도하는 패션 테크 스타트업 코디미 (CodiMe)가 자사의 AI 이미지 생성 솔루션 '포투(Potoo)'에 상하의 착장, 얼굴 고정, 배경 선택, 뒷면 생성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하며 패션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내고 있다.

포투는 패션 브랜드 및 이커머스 셀러들이 모델 섭외나 촬영 없이도 고퀄리티 룩북, 상세페이지, 스타일링 콘텐츠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패션 특화 생성형 AI SaaS 서비스다. 패션 셀러는 상하의 착장 조합, 스타일에 맞는 배경, 원하는 모델 얼굴을 선택하면 10분 이내에 착용 모델컷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얼굴 고정' 기능은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모델컷 제작에 활용도가 높고, '뒷면 생성' 기능은 제품의 앞·뒤가 모두 구성된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 고객 만족도와 콘텐츠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배경 선택 기능도 시즌 마케팅, SNS 운영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코디미 정지혜 대표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의 비용 효율화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패션 업계의 콘텐츠 전략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 패션 쇼핑몰 A는 해당 기능 도입 이후 기존 2주 이상 소요되던 섭외·촬영·보정 작업을 하루 만에 대체했으며, 콘텐츠 생성에는 평균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편 포투는 2025년 상반기 내로 매달 새로운 모델 이미지와 구도 선택 옵션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잡화 카테고리 확대 및 버추얼 인플루언서 연계 기능도 공개할 계획이다. 패션 업계에서도 생성형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자동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포투의 기능 고도화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FASHION TECH

스튜디오랩 "패션 커머스의 디지털 전환, AI와 로봇이 이끈다"

인하우스 스튜디오·SaaS 구독 모델 등 수익 다각화

올해 글로벌 커머스 시장은 디지털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스튜디오랩(StudioLab)은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이 아닌,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전자 C-Lab 출신의 스피노프 기업으로 시작해, CES 2024·2025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 기업은 AI와 로봇틱스를 결합해 온라인 패션 커머스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스튜디오랩의 대표 기술은 '젠시(GENCY) PB'와 '젠시(GENCY)'다. '젠시 PB'는 제품 사진 촬영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로봇틱스 기반의 사진촬영 솔루션으로, AI가 피사체를 실시간 분석해 전문 사진작가 수준의 촬영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 장비가 아니라,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전환을 현실로 만드는 '촬영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틱스 촬영 체험존으로도 개발되어 부산역 등에 설치되었고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스튜디오랩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2025년 MWC에서 젠시 PB의 유럽 첫 공개 이후, 독일 C&A와의 계약 체결, 유럽 물류센터 설립 등 본격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실행 중이다. 특히 패션 브랜드와 유통사의 이미지 콘텐츠 제작 니즈가 높은 유럽 시장에서, 스튜디오랩의 자동화 기술은 확실한 수요와 맞물려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비바테크(VivaTech) 2025 참가를 통해 AI·로봇틱스 기술을 유럽 투자자와 기업에 소개하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스튜디오랩은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커머스 기업들과 공동 PoC(개념검증)를 추진하며, SaaS 기반의 구독 모델과 인하우스 로봇 스튜디오 구축 서비스 모두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검증받고 있다.

'탄소섬유에서 AI까지'

대구섬유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10월 12일까지 섬유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대구섬유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0월12일까지 '섬유, 경계를 넘다(Beyond Textile)'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이 특별전은 고기능성 섬유(파라아라미드·탄소섬유 등), 카본 자전거·양궁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패션 화보, 가상 패션쇼 영상 등 70여점을 선보인다.

또 섬유의 무한한 가능성과 첨단 기술력, 섬유가 단순한 의류 재료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섬유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섬유, 소재를 혁신하다', '섬유, 산업의 경계를 넘다', '섬유, 삶의 방향을 바꾸다' 등 3부로 구성된 전시를 통해 섬유의 고기능성 합성 소재 진화 과정과 카본 소재로 제작된 자전거 등 기술과 융합한 섬유, AI와 디지털 기술이 섬유와 만나 창작과 소비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을 조명한다.

디자이너들의 지속 가능한 작품도 최초로 공개된다. 이승익은 폴리젯 3D 프린팅 기법으로 가죽 위에 입체적 텍스처를 구현한 패션을, 폐기 로봇의 부품과 재고 비즈를 활용해 3D 프린팅 드레스를 디자인해 기술과 전통, 업사이클링을 결합한 새로운 패션을, 비스픽은 AI 디자인 플랫폼 'AiDA'를 통해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의상을 선보인다.

대구섬유박물관은 대구시의 위탁을 받아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쇼핑엔티, AI구현 '움직이는 패션' AI 룩북 브랜드관 오픈

AI로 자연스러운 움직임 구현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알엔의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4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룩북' 패션 브랜드관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AI 룩북 콘텐츠는 기존의 정적인 착용 이미지와 달리 AI 룩북은 실제 착용한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해 고객이 옷의 핏과 질감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직접 입어보는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확신 있는 구매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디브'와 '벨리츠'를 포함한 10개 브랜드의 AI 룩북 콘텐츠를 운영 중이며 각 브랜드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쇼핑엔티는 앞서 AI 기반 채팅 상담 서비스인 'AI쇼핑톡', 방송 내용을 요약 제공하는 'AI 방송요약' 등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경험을 강화해왔다. 이번 AI 룩북 콘텐츠 도입 역시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다.

쇼핑엔티 이은주 서비스기획팀장은 "AI 룩북 콘텐츠는 단순한 상품 노출을 넘어, 실제 착용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객 중심의 쇼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한국섬유신문, 산업혁명 새 지평 여는 '버티컬 AI'시대 개막, 25년 6월 11일
2. 경상매일신문, 다이텍연구원, 소재부품장비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최종 선정, 25년 6월 8일
3. ITBizNews코디미 '포투', 패션 모델 촬영 없이 콘텐츠 완성...매출 530%↑, 25년 6월 9일
4. 뉴스팀, [비바테크 2025] © 스튜디오랩 "패션 커머스의 디지털 전환, AI와 로봇이 이끈다", 25년 6월 4일
5. news1, '탄소섬유에서 AI까지' 대구섬유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25년 06월 04일
6. news1, 쇼핑엔티, AI 기술 접목한 'AI룩북' 패션 브랜드관 선봬, 25년 06월 04일